

거침없는 KIA 1위 보인다

두산·LG와 홈 6연전 ... '한뼌차' SK 맹추격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최희섭 가서 'LCK포' 재가동 기대

비율을 잡고 2위 진입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이 1위 자리에 도전한다.

SK 와이번스와의 주말 원정 3연전에서 이종범의 투혼포로 3승을 안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잠실 한지붕 두 가족'을 상대로 홈 6연전을 치른다.

프로야구 팬들의 눈길은 SK·KIA·LG의 숨막힌 승부싸움에 향해 있다.

KIA는 지난주 2주 연속 5승1패를 쓸어담으면서 30승23패(승률 0.566)로 LG와 2위 자리를 놓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SK와 LG가 주중 각각 약체 넥센과 한화를 만나는 것에 반해 KIA는 니퍼트를 앞세운 두산과 만나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

올 시즌 전적에서도 SK와 LG는 넥센과 한화에 각각 5승1패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KIA는 두산과의 대결에서 3승2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

주말에는 KIA와 LG의 빅뱅이 군산열령구장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

서 KIA가 6승3패로 앞서있지만 LG의 불방망이는 경계대상이다. 다승 1위 박현준과 해외국인 투수 리즈·주키치, 투기 임찬규 등 한층 탄탄해진 마운드도 쌍둥이들의 고공행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심타선이 이번주 KIA의 1위 싸움에 키를 쥐고 있다.

지난주 이범호·김상현의 한방이 터져나오기는 했지만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또 허리통증으로 2군에 다녀왔던 최희섭이 등 근육통으로 주말 2경기에 결장하는 등 4번타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단신 테일러를 세터진 이용규·김선빈이 막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6일 현재)

Table with 8 columns: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개인차, 연속. Rows include SK, KIA, LG, 삼성, 롯데, 두산, 한화, 넥센.

강 화력과 재치있는 플레이로 KIA의 공격을 주도했지만 '클린업트리오'의 지원 사격이 아쉬웠던 한 주였다.

마운드 대형 서재응이 기선제압을 위해 가장 먼저 출격한다. 칼날 계구가 살아나면서 최근 2연승을 기록한 서재응은 7일 니퍼트와 맞대결을 갖고 KIA의 1위 고지를 위해 앞장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최희섭



김상현

광주일고 고교야구 왕중왕전 준우승

총합고에 1-6 패배

광주일고의 고교야구 왕중왕전 우승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광주일고가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총합고와의 주말리그 전반기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마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1-6으로 패했다.

광주일고는 총합고 선발 변진수에게 7개의 안타를 뽑아냈지만 삼진도 13개를 기록하면서 1점을 만드는데 그쳤다.

1회부터 광주일고가 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노유성이 첫타자 김태훈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이진석에게 2루타를 맞으며 무사 2·3루에서 마운드를 서동욱에게 넘겨졌다.

0-4로 뒤지던 8회초 2사 2루에서는 총합고 김병재의 타구가 우익수 키를 넘기면서 2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접수는 0-6까지 벌어졌다.

광주일고가 8회말 김병석의 2루타와 조현준의 내야안타로 1사 2·3루의 반격 기회를 잡았지만 송찬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1-6으로 패배를 기록했다.

결승전 안투로 총합고 승리를 이끈 변진수가 최우수선수상과 우수투수상을 수상했고, 광주일고 투수 이현동은 감투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 후계자' 될까 지동원 '가능성' 시험

축구대표팀 오늘 전주서 가나와 평가전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평가전을 벌인다.

지난해 9월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0-1로 패한 뒤 A매치에서 7승4무를 기록한 대표팀(31위)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인 가나를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8강까지 올랐던 가나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마이클 에시엔(첼시) 등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진 1.5군으로 대표팀을 꾸렸다.

조광래 대표팀 감독은 3일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 선발로 나섰던 선수들을 대부분 먼저 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마친 조 감독은 "전반은 주전 위주로 기용하고 후반에 상황을 봐서 교체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광래 감독의 공인대로 지동원은 선발로 출격해 '박지성 후계자'로서의 가능성



성을 시험받는다. 미드필드에는 이용래(25·수원)와 김정우(29·상주)가 중앙에 위치하고, 기성용(22·셀틱)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19) LG 트윈스 전성시대

언론의 프로야구 참여로 논란이 많았던 원년 멤버 MBC 청룡이 1990시즌에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해체됐다.

MBC 청룡을 승계한 LG 트윈스는 백인천 감독을 영입해 '흔의 야구'로 프로야구 관을 뒤흔들며 놓으며 300만 관중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근거로는 전통적으로 MBC 청룡 선수들은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워크의 부조화로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듯 뒷받침 없기로 소문난 '청룡' 선수들이 '쌍둥이'로 웃을 갈아입고 새 사령관 백인천 감독의 베풀어갈들이기

'청룡'서 '쌍둥이' 변신...기적의 불꽃 레이스로 우승까지

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난 것이다. 전설의 원년 '할 타자' 백인천 감독은 경기에 최선을 다 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주장인 김상훈을 비롯한 주력인 최일언·김신부·윤덕규 등을 2군으로 강등시키는 책과 신예인 김영자·김선진·조필현 등을 중용하는 당근책을 적절히 활용하며 팀 분위기를 쇄신했다.

그리고 LG 트윈스는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는 속설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북경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9월은 LG 트윈스가 기적을 연출한 시기이기도 했다.

LG 트윈스는 페넨트레이스 4위로 준플레이오프에서 3

위인 빙그레 이글스를 꺾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해 2위인 해태 타이거즈마저도 제치고 올라온 삼성 라이온즈와 대망의 한국시리즈를 펼치게 되었다.

LG는 한국시리즈 1차전서 김용수의 무실점 호투와 김상훈의 3안타 3타점 등 장단 21안타를 몰아쳐 13-0의 대승을 거두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신청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Table with 7 columns: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회원자격, 골프서비스, 숙박서비스, 모집인원. Rows include Prime, Premium, and Standard memberships.

프라이밍 호남 VIP란?

- 광주/전남 법인회원을 위해 리즈골프 호남지사만의 단독상품으로 법인 Business용 Golf Membership 회원권입니다.

기타 회원혜택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자상경비 회원대우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

광주/전남 Golf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리즈골프(Liz Golf)
프라이밍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 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